‘엔비디아 동맹’ 훈풍…코스피 4200선 뚫었다

반도체 대장주 강세 속 4221.87 마감 ‘종가 최고치’

현대오토에버도 11%↑…조선·방산주 실적도 영향

코스피가 APEC과 한미 관세협상, 엔비디아 동맹 등 빅이벤트 속에 반도체주 강세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4200선을 넘어섰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장 대비 114.37p(2.78%) 오른 4221.87에 장을 마감하며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15.86p(0.39%) 오른 4123.36으로 출발해 상승 폭을 키웠다. 한때 4221.92까지 오르며 지난달 30일 기록한 장중 기준 역대 최고치(4146.72)마저 경신했다.

한·미 양국 간 관세 협상 타결,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방한 효과 등 대형 호재에 힘입어 사상 첫 4000선을 뚫은 뒤 지난 1일 막을 내린 APEC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숨 고를 틈 없이 연일 강세장을 보인 것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은 각각 6514억원, 1855억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 올렸다. 외국인은 7963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특히 이날 국내 증시에는 지난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의 방한과 ‘엔비디아 동맹’이 큰 영향을 미쳤다. 엔비디아 동맹은 정부를 비롯해 삼성전자와 SK그룹, 현대차그룹, 네이버 클라우드 등 국내 4개 기업에 총 26만장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공급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반도체 대장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SK하이닉스는 전장보다 10.91% 오른 62만원대로 올라섰고, 삼성전자도 3.35% 오르며 역대 처음으로 11만원대를 넘어섰다.

엔비디아 동맹에 참여한 현대차그룹에서도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그룹 내 시스템통합(SI) 전담업체 현대오토에버는 11%나 급등, 22만5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아울러 지난 주말 한중 정상회담 이후 한중 관계 개선 기대가 번진 데다, 이날 장중 조선·방산 대형주가 줄줄이 3분기 호실적을 공개한 점도 지수에 상승의 요인으로 꼽힌다.

3분기 호실적을 공개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6.44%), 현대로템(6.07%), HD한국조선해양(1.16%) 등이 일제히 상승했고, 두산(7.27%)도 100만원 선을 넘어섰다.

다만,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된 전체 종목 중 하락한 종목은 615개로, 상승 종목수(288개)를 웃돌아 ‘불장’의 기운이 증시 전반으로 퍼지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코스닥은 전장보다 14.13p(1.57%) 오른 914.55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5.77p(0.64%) 오른 906.19로 출발해 장 초반 902.29까지 상승폭을 줄였으나 장중 오름폭을 키웠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887억원, 32억원 순매수했으며 개인은 3419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거래 대금은 각각 22조6640억원, 12조7740억원이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4.4원 오른 1428.8원을 기록했다.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순매도하면서 환율에 상승압력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홍보관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 등이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14.37p(2.78%) 오른 4,221.87에, 코스닥은 14.13p(1.57%) 오른 914.55에 장을 마감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2차 소비쿠폰 지급률 98% 돌파

2909억 규모…소상공인·전통시장 매출 회복 기대

전국 97.5% 신청…이달 말까지 소비·잔액은 소멸

광주·전남에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의 98% 이상이 신청을 마치며 총 2909억원 규모의 소비쿠폰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6시 기준으로 2차 소비쿠폰 신청·지급을 마감한 결과 광주는 전체 지급 대상자 128만7065명 중 98.08%에 해당하는 126만2375명이 신청했다. 이들 신청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1262억원이었다. 전남은 164만7279명이 신청해 98.14%의 지급률을 기록했고, 지급액은 1647억원에 달했다.

이번 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지급됐다. 광주에서는 신용·체크카드 97만3039건, 지역사랑상품권 865건, 선불카드 28만8452건이 사용됐고, 전남은 신용·체크카드 70만2878건, 지역사랑상품권 50만3010건, 선불카드 27만6219건이 지급됐다.

광주·전남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은 이번 소비쿠폰이 지역 내 소비진작과 매출 확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소규모 상권과 전통시장 이용을 촉진하며, 자영업자 매출 증가와 지역 경제 선순환을 유도할 전망이다.

소비 패턴을 보면 광주는 신용·체크카드 사용 비중이 전체 지급 건수의 77%를 차지하며 모바일 결제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고, 전남은 상대적으로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활용률이 높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적으로도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지급 대상자 4567만명 중 97.5%인 4453만명이 신청했으며, 총 지급액은 4조4527억원에 이른다. 신용·체크카드 신청이 3489만건(68.5%)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지류) 825만건(18.5%), 선불카드 579만건(13.0%) 순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올해 9월 22일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했으며, 1차 소비쿠폰은 전체 대상자의 98.96%가 신청해 2차보다 다소 높은 신청률을 기록했다. 1·2차 소비쿠폰 사용기한은 모두 오는 30일까지이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국고로 환수된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전남도 소비쿠폰 인증 이벤트

150명 추첨… 커피쿠폰 증정

전남도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도민 참여형 이벤트를 진행한다.

전남도는 소비쿠폰을 사용한 도민을 대상으로 ‘소비쿠폰 사용 인증 이벤트’를 열고, 오는 7일까지 참여자 중 150명을 추첨해 커피쿠폰을 증정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소비쿠폰 사용 활성화와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참여 방법은 전남도 내 가맹점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한 뒤 영수증을 인증폼에 업로드하면 된다. 세부 절차와 링크는 전남도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9월 22일 2차 소비쿠폰 지급과 함께 1차 인증 이벤트를 진행해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이번 2차 이벤트는 소비쿠폰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전남도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도민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 상권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여러분의 참여를 통해 지역경제의 온기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쿠폰 사용 기간은 30일까지다. 전남도는 행사 종료 후에도 쿠폰 사용 독려를 위한 온라인 홍보와 이벤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

KT는 3일 국토교통부 주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챌린지 2단계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사진은 KT를 비롯한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항공이 함께하는 K-UAM 원팀이 인천 아라뱃길 실증 현장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KT, 도심항공 교통관리 운용성 입증

통신 두절·GPS 신호 불안정 등 점검

KT가 국내 최초로 도심항공 교통관리 운용성 입증에 성공했다.

KT는 국토교통부 주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그랜드챌린지 2단계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3일 밝혔다.

국내 최초로 도심 환경에서 진행된 이번 실증은 통합 교통 관리 체계와 도심항공교통 운영의 핵심 인프라인 5G 항공망의 안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KT는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항공과 함께 K-UAM 원팀 소속으로 인천 계양에서 청라까지 이어지는 아라뱃길 15㎞ 구간에서 실증을 수행했다.

KT가 자체 개발한 UAM 교통관리시스템(UATM)을 중심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립한 UAM 교통관리 표준 운영절차(SOP), 핵심 인프라인 5G 항공망, 비행 데이터를 유통·연계하는 정보공유시스템까지 포함한 통합 교통관리 체계의 안정성을 복잡한 도심 환경 하에서 집중 검증했다.

KT는 정상 비행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통신 두절, GPS 신호 불안정, 예기치 못한 비행체 출현과 같은 다양한 돌발 상황을 실제와 유사하게 구현해 실증을 진행했다. 또 교통관리시스템이 비정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분석해 교통관리자가 즉각 대응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KT는 5G 항공망을 기반으로 고도 300~600m의 하늘길에서도 선명한 음성 통화 품질을 구현해 조종사와 교통관리자 간 실시간 의사소통의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이는 높은 고도와 개방된 공역에서 활용되는 기존 항공교통체계와는 다른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복잡하고 장애물이 많은 도심 환경에서도 UAM 운항에 필수적인 통신 안정성과 신뢰성을 성공적으로 입증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건설협회 광주시회, 내달 23일 13대 회장 재선거

김명기 회장 대법원 상고 취하…임기 2027년 6월까지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가 1년여 동안 이어진 회장 선거 관련 소송전을 마무리 짓고 새로운 회장 선출에 나선다.

3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설협회 광주시회는 제13대 김명기 회장 당선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 상고가 지난달 27일로 취하, 회장 당선 무효가 최종 확정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회원들에게 전달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2023년 4월 실시된 13대 회장 선거에서 근소한 차로 조성래 전 협회 부회장을 누르고 당선됐다. 하지만 조 전 부회장이 선거 과정에서 당선인의 금품제공 행위를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고, 1·2심 모두 당선무효 판결을 받았다.

김 회장은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이를 포기하면서 법원의 판단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협회 측은 정관에 따라 수석부회장인 황인일 부회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앞서 법원이 임명했던 문방진 변호사의 직무대행 체제는 이번 판결 확정으로 종료됐다.

협회 운영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차기 회장 선거를 다음달 23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협회 정관상 회장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는 ‘궐위된 날 이후 처음 열리는 정기 또는 임시총회’에서 실시하도록 돼 있다. 다만, 새롭게 선출된 회장은 14대 회장이 아닌 13대 회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당선 자체가 법원으로부터 무효 판결을 받았기 때문으로, 임기 역시 잔여일인 2027년 6월까지라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지역 건설인의 위상과 단체의 신뢰가 손상됐다”며 “새로운 회장은 투명성과 통합 리더십으로 조직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농촌체험 ‘남도체험투어’ 10% 할인 혜택

109개 프로그램…12월 말까지 남도장터 운영

전남도가 지역 농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남도체험투어 프로그램’을 오는 12월 말까지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www.jnmall.kr)’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남도가 교육적 효과와 안전성을 종합 검토해 선정한 39개 체험농가·업체가 운영하는 109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체험 내용은 △전통 고추장 담그기 △농산물 수확 체험 △천연 화장품 만들기 △차문화 체험 △치유형 목장 체험 △반려식물 키우기 등으로 다양하다.

특히 어린이 대상 체험학습과 연계한 농촌 테마 관광 프로그램으로도 활용도가 높아, 가족 단위 여행객들에게 큰 호응이 기대된다.

체험농장 ‘맘스호미’를 운영하는 김선주 대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홍보와 예약이 방문객 모집에 큰 도움이 됐다”며 “10% 할인 혜택이 더해져 더 많은 분들이 농촌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상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농촌체험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콘텐츠”라며 “이번 할인 행사를 계기로 많은 분들이 남도의 농촌을 직접 방문해 다양한 체험을 즐기며 지역의 매력을 느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남도장터 테마관에서는 전남 각지의 체험 프로그램을 10% 할인된 금액으로 연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이현규 기자